



▲ 전 영 응 소장

최대 규모의 아파트 현장에서 최고의 안전으로 무재해 이룩

- 풍림산업주식회사 송도아파트 현장 -

서쪽 바다에서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겨울을 실감케 하는 추운 계절 속에서
도 2003년 1월 착공 후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무재해 준공을
향해 매진하는 현장을 찾아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인천으로 향했다.

오늘도 바쁜 손놀림이 한창인 이곳은 풍림산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송도
아파트현장(전영웅 소장)이다.

62개동의 아파트에 총 3천4백여세대와 부속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이곳 현장은
안전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국내 최고의 현장으로 송도 신도시 현장 중에서
도 단연 돋보인다.

안전성이 뛰어난 공법 선택과 근로자의 뿌리인 의식의 변화로 근원적인 안전에
접근하는 것도 여타 건설현장과는 다른 시각에서 있음을 보여준다.

근원적인 안전에 역점

안전관리에 있어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
법이며,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자율적인 안전이야말로 가장 좋은 안전관리
수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곳 현장이 더욱 눈에 띄는지도 모른다.

아파트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공종 중 하나는 지하주차장 공사이다. RC공법을
사용하여 많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타 현장과는 달리 이곳 현장에서는 조립식 개
념의 PC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였다. 적은 작업인원 투입으로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이 공법은 공간확보가 어려워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는 RC공법보다 안전
성이 뛰어난 공법이다.



두 번째는 의식 개혁을 통한 안전관리이다. 전영웅 소장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 의식변화는 자율적인 안전으로 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 중 안전교육이 그렇다. 무조건적인 설명이나 지시보다 왜 필요한지의 적극적인 원리를 시·청각적인 요소와 체험 위주의 교육 등 근로자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곳 송도아파트 현장의 교육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장을 찾는 근로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각적인 안전활동 전개

송도 아파트 현장은 아침부터 특별함을 볼 수 있다.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 직·반장이 주도하는 아침 조회나 단순히 몸만 풀어주는 체조가 아닌 전문 강사를 초빙한 제대로 된 체조가 실시되고 있다. 단 한번의 체조라도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전활동으로 무재해 준공을 향하는 송도 아파트 현장은 다각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하고 있었다.

현장 근로자 스스로 안전한 습관과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제안제도는 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식당에 제안함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제안되는 많은 사항들을 품질안전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에 반영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

또한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순찰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안전관리를 한

다. 이때 순찰팀은 해병전우회 출신 등 전문안전순찰 요원으로 별도 구성하여 수시로 변하는 건설 환경 특성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발카드도 발행하는데, 위험사항에 대해 조치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오늘 최한수 안전팀장과의 인터뷰 도중에도 이러한 순찰팀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한 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이 밖에도 몇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현장 내에 있는 모든 교육자료에 동남아 국가의 언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안전의 기본인 정리 정돈의 정착을 위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House Keeping,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한 응급조치 습득 등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1차 현장에서는 무재해 3배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무재해의 끈을 계속 이어가는 이곳 현장에서는 앞으로의 무재해 준공을 위해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기관, 협력사, 직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무재해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꺼지지 않는 무재해의 등불을 계속 지펴나가고 있다.

을유년을 맞이하며

국내 최고의 아파트 현장답게 안전에 대해서도 수준급임을 자부하는 송도아파트 현장이 맞이하는 을유년은 그동안의 고생을 마무리 짓는 해로, 오늘의 기세를 입주자가 새롭게 보금자리에 안착하는 그날까지 이어나가 흐트러짐 없이 무재해를 이룩한다는 각오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고 기본에 안전이 배어 나오는 그날이 오길 기원하는 전영웅 소장은 직원, 근로자 모두 건강하게 현장을 떠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한다.

이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답게 하나하나 마무리 해나가는 풍림산업주식회사 송도 아파트 현장 가족들이 다른 현장에서도 안전의 신기원을 달성하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종덕 기자〉

